

학부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교재 개발과 하나님나라운동 : 보건학부 사례를 통해 본 복음화 현황 및 제언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들어가는 말

백석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이다. 기독교대학으로서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개혁주의를 그 뿌리에 두고 있다. 개혁주의는 말씀을 왜곡하고 타락한 중세교회에 반발하여 교회를 회복하고자한 개혁 사상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도 결국은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주의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원리인 5대 솔라(‘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를 말한다. 이는 개혁주의신학의 핵심이며,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이러한 신앙원리를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이 시간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7대 실천운동 중 하나님나라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백석학원은 학원복음화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채플과 <기독교의 이해> 과목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학원복음화를 위한 양대 축이다. 백석대학교는 2018년도 2학기부터 기독교학부를 제외한 11개 학부 48개 전공에서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학원복음화의 한 축인 <기독교의 이해> 과목을 교목뿐 아니라 일반 교수들이 함께 담당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학원복음화를 위해 다른 기독교대학들이 하지 못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수업의 목적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각 학문 영역에서 학생들의 기독교 지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각 전공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독교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원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축인 대학채플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된다. 하지만 복음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깨달을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판단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세계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세계관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도 세상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채플과 함께 학원복음화의 두 번째 축인 <기독교의 이해> 과목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계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지성을 심장과 뇌로 비유한다면, 복음은 생명인 피를 온 몸에 전달하는 심장과 같고, 기독교 지성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실행하게 하는 뇌와 같다. 심장이 생명의 근원인 피를 몸에 전달함과 같이 복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살아있게 해야 한다. 뇌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여 행동을 명령하듯이 기독교 지성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판단하여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은 타락하여 사고와 판단이 세상적 세계관으로 오염되어 있다. 영적 생명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디즈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술적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 행동이 깨끗하여지지는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심장이 생명인 피를 온 몸에 공급하듯이 복음 전파로 우리 학생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지성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모든 훈련은 힘들다. 군대에서 훈련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가? 아니다. 힘들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연약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프다. 하지만 땀줄을 끊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단단한 씨앗을 짓고 나와야 생명이 자라게 된다. 끊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이겨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경건훈련과 기독교 지성을 계발하는 훈련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각 학부의 전공교수들에 의해 학부별 특성에 맞게 개발된 11권의「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교재는 복음으로 변화된 학생들이 각 학부에서 전공지식을 습득한 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나라운동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52명의 전공학부 교수들에 의해 시작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복음과 기독교 지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기독교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백석의 졸업생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백석에서 시작한 하나님나라운동이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2018년 2학기 새롭게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수강신청 문제를 시작으로 교양수업을 맡게 된 전공교수들의 어려움과 불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직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11개 학부의「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교재 중 보건학부의『전인건강, 관계회복에서 시작된다』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고 수업운영 결과와 하나님나라운동을 위한 간단한 제언을 나누어 보려 한다.

I. 보건학부 기독교세계관 수업운영 내용

2018년 2학기 백석대학교 보건학부의 6개 전공에서 7개의 기독교세계관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 중 4개의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나누고자 한다.

1. 수강신청자 현황

각 학부의 전공학생들을 위한 11권의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해당 학부의 수업을 듣도록 권고하였으나 실제 수업운영에 있어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부와 관련된 강좌를 신청하기 보다는 자신이 등교하는 날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신청하였다.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의 경우, 6개 학부 13개 전공에서 58명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다. 그 외,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도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다.

2. 교재활용의 수정

다양한 학부와 전공 학생들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수업에 참여하여 보건학부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공통과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보건학부와 관련된 내용은 2주 만 다루어 강의하기로 하였다. 다른 학부의 학생들은 소속 학부의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II. 결과

1. 신앙과 세계관 유형 분석 결과

이번 학기 1개 과목의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담당하였으나, 4개 반의 학생들의 세계관 유형분석을 추가로 실행하여 4개 반 20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 1장에 있는 세계관 유형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앙현황

학생들의 신앙은 무교로 응답한 학생의 수가 207명 중 119명(57.5%)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68명(32.9%), 천주교가 16명(7.7%), 불교가 4명(1.9%)이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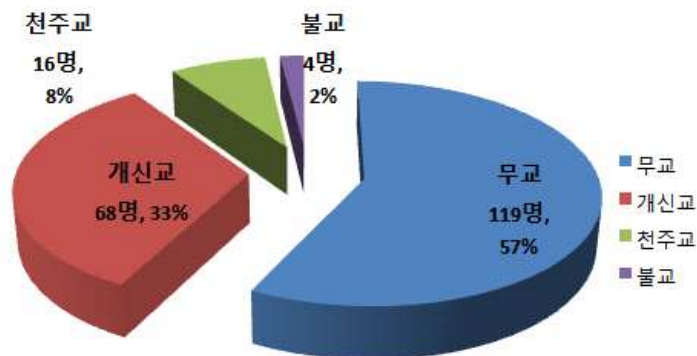


그림 1. 신앙 현황(4개 반 207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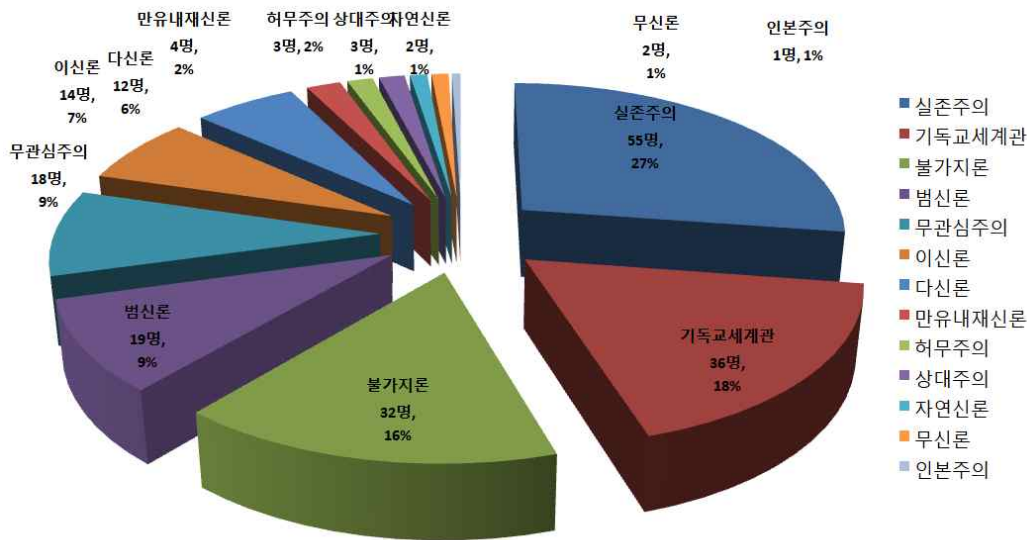


그림 2. 세계관 유형분석(4개 반 207명 대상)

2) 세계관 유형 분석 결과

학생들의 세계관은 실존주의로 분류된 학생이 55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가지론 32명(15.9%), 기독교세계관 36명(17.9%), 그 외 범신론, 무관심주의, 이신론, 다신론, 인본주의, 허무주의, 무신론 등이 78명(38.8%)이었다(그림 3). 이러한 세계관 유형분석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세계관 유형 분석 결과를 설명한 글을 읽게 하고, 설명한 내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71명(82.6%)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대체로 일치하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33명(15.9%)의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무응답자는 3명(1.4%)이었다.

신앙을 기독교라고 응답한 84명의 학생 중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학생은 36명(42.9%)이었고, 그 외 범신론 13명(15.5%), 실존주의 9명(10.7%), 이신론 6명(7.1%), 다신론 5명(6.0%), 만유내재신론, 불가지론은 각각 4명, 무관심주의 2명, 자연신론 1명, 미분류가 4명이었다(그림 4).

Ⅲ. 토의

매 학기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현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기독교라고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니?”라고 질문하면, “초등학교 때 몇 번 나갔었다.”고 말하거나, “어렸을 때 다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등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다. 학생들의 신앙 상황을 상담을 통해 어렵듯이 추측만 하고 있다가 이번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과 세계관에 대하여 수치로 확인하게 되어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닌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지만,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의 17.9%만이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연 우리 대학은 설립정신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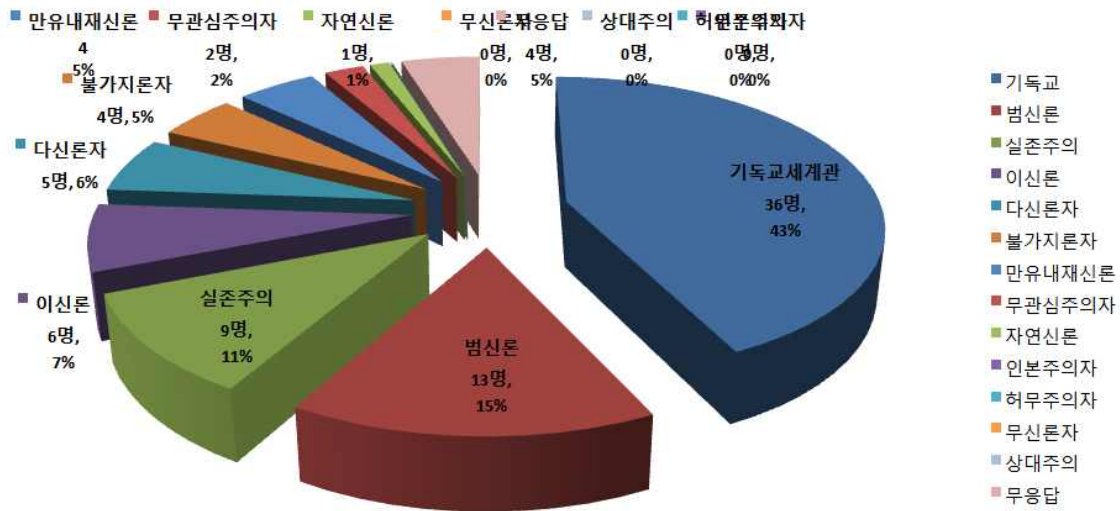


그림 3. 기독교인 학생들의 세계관 유형 분석
는지 자문하게 된다.

학원복음화가 우리 대학의 최우선 과제이다. 복음을 깨달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각 전공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석대학교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10명 중 1.8명 정도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학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백석대학교 건학 4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을 축복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타 기독교대학에 비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없을까?

2018년 한국대학신문의 <기독교대학, “기독교적 가치 수호가 대학 경쟁력”>이라는 기사에서 배재대 교목실장은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 비율이 평균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만으로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이 기독교인의 비율인지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조사이지만 우리 대학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이고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의 비율이 17.9%라는 것은 우리 대학의 교목들이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학의 교목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학생들을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개 반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교목실에서 학생들의 복음 전도에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전공교수들에 의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해 학문을 바라보도록 한다면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40.6%의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제언

우리 대학이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백석학원의 교육원리인 기독교세계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일은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잘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학생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 복음을 깨달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각자 소명으로 주신 전공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학기 기독교이해 8개 과목 중 전공학부의 교수 52명이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수업을 담당하였다. 학부의 교수들이 교육, 행정, 상담 등의 일로 바쁜 중에도 학생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계발하기 위해 어렵고도 힘든 일을 선택하여 준 동료 교수들에게 감사한다. 11월말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다 나은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백석정신아카데미나 교목실뿐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교수들이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에 대한 열의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 수업의 정원 축소와 강의교수에 대한 교수프로그램 운영

기독교 세계관 수업 수강신청 대상자를 현재 6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 학부 수강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현재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학부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담당하는 전공교수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교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수고에 합당한 업적 평가 점수 등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학부 담임목사가 전담하는 채플에서 전공(학과) 교수와 협력하는 채플 운영

이 수업의 취지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전공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4개 반 207명을 대상)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교수들이 본 수업의 취지를 살려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복음이 먼저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을 계발해야 한다. 현재 백석대학교의 학부 담임목사제도는 각 학부에 1인 교목이 사역을 담당하던 체제에서 채플담당 교목과 각 학부에 소속되어 기독교 인성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목실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이겠지만 국내 기독교대학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교목 한 분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 담당 교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대학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생각난다.

하지만 12,000여 명의 학생들의 복음화를 12명의 교목목사들(채플담당 교목과 인성과목 담당 교목)이 담당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이에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학부 중심의 채플에서 전공(학과) 채플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제안한다. 현재 채플담당 교목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화예배, 문화예배, 찬양예배를 유지하면서 인성과목 담당 교목과 교수로 재직하며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교수,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각 전공(학과) 채플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공격적 투자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노력할 뿐 아니라, 일반 대학들에는 없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입생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교목을 두고 있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역사관, 기독교박물관, 유관순연구소, 기독교인문학연구소, 인성개발원,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 직·간접적으로 기독교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이 아니라면 결코 하기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백석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듯이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와 이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각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학평가 등 세상적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학생복음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기독교대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짓이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바보 같은 일이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덤비는 것(삼상 17:41-49)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의 모습(삼상 7:10)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윗과 사무엘의 행동을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믿음의 승리자인 것이다. 기독교대학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는 어떠한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백석대학의 설립정신은 <성경이 답이다>라고 말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설립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머리로 아는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이다.

이 시점에서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백석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낭비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이 주는 답이다. 우리 대학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학교를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 학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글을 마치며

각 학부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수업은 백석인의 교육원리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인류를 섬기는 인재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는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육과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목실과 백석정신아카데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평가 등 각종 평가 지표를 높이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 일은 대학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백석학원은 세상의 평가를 지혜롭게 준비하되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를 경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기독교대학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세속적 평가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걸 분명히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의 편협한 생각이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었으나 세속화된 국내외 대학들의 예는 '우선 대학이 생존하고 나서 기독교대학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위기 상황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 시험과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세속적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세속화된 대학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백석학원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다. 기독교대학을 이루려는 진정성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드러난다.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학을 굳건한 기독교대학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마 25:30).

백석대학교는 기도와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와 함께 우리는 더욱 명실상부한 기독교대학으로의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 일의 중심에 기독교학부, 교목실, 백석정신아카데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석학원으로 부르신 이유이다. 복음전파와 백석학원의 정체성을 굳고히 하는 일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며,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일(복음전파와 백석학원의 정체성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일)인 것이다. 백석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역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6)

일반학부 교수로 백석대학교에서 섬기며 학원복음화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이 보다 과감히 개선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기독교대학

실천원 연구팀장을 하며 그 이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대학이 '기독교대학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연구하는 부서의 팀장'이라는 부르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러한 고민은 문제를 보게 하고 그로 인해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곤 하였다. 하지만 불만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문제가 많다. 개선할 점이 너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불만과 불평을 기도제목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셨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상황조차도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다. 우리 대학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대학을 기독교 대학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린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